

## Foreword

In addition to shows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has organized a host of exhibitions dealing the history and new movements in crafts. It is therefore with great pleasure that we present the latest of these, *Kyoto Textiles: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t has been over 1,200 years since the capital of Japan was transferred to Kyoto. Over the centuries, textile artisans have developing a wide range of devices, techniques, and designs to keep pace with the times. Their outstanding works stem from an effort to carry on an unbroken line of methods and forms while constantly pursuing new approaches amid the changes that arose in every era.

Since the museum opened in 1963, we have presented many and varied exhibitions showcasing textiles. In addition to those featuring individual artists, these have included *Textiles in the World<1>-Egypt and Persia-* (1965), *Textiles in India, China and South-East Asia* (1969), *New Textile Artists* (1971), *American Quilts* (1976), *Fiber Works: Europe and Japan* (1976), *Frontiers in Fiber: The Americans* (1988), *Beyond Textiles: Four Dutch Contemporary Artists* (1996), *REVELATION: textile artists addressing issues* (1998), and *through the surface: Collaborating Textile Artists from Britain and Japan* (2005).

In this exhibition, we focus on 28 artists and aspects of their work to shed light on various conditions related to textiles from the 1960s, when the museum first opened, to the present day. Unfortunately, space constraints have made it necessary to limit the number of artists and works, but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viewers with a general overview of Kyoto textiles from the 1960s – an era that saw the birth of new forms of works which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crafts and art, and transcended conventional notions of crafts – to the present.

In closing,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st gratitude to the collectors and museums that kindly agreed to loan us valuable work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 many others who helped us realize this exhibition.

March 2019  
Organizers

## 致辞

京都国立近代美术馆不仅关注近现代美术，也不断关注工艺的历史及新动向，并举办过许多相关展览。

这次本馆决定举办“京都染织 从20世纪60年代到今天”展。

自从平安时代迁都京都，至今已经历了1200多年，在拥有如此悠久传统的京都，染织工艺家们顺应时代发展探索出各种新技术、各种技巧和设计。可以说这些染织工艺的精华世代连绵传承，而且在各个时代，染织工艺家们一直都在不断变换染织技法和形态，并不断求新，从而创作了卓越的作品。

本馆自1963年开设以来一直关注染织艺术，并举办了各种相关展览，从1965年的“世界染织1 埃及和波斯”开始，之后还举办了1969年的“东方染织”、1971年的“染织新一代”、1976年的“美国的拼布艺术”和“当今造型——纺织 欧洲和日本”、1988年的“纤维艺术新领域 美国”、1996年的“纺织品的冒险——当代荷兰的四位艺术家”、1998年的“纺织品的发言：今日英国”、2005年的“through the surface: 通过表达——日英当代纺织品交流”等，我们超越艺术家个展的范畴，举办了众多与染织相关的展览。

本次展览将介绍自本馆开设当初的20世纪60年代到现在的多样的染织工艺，通过对28位染织工艺家的介绍观赏染织艺术的面貌。遗憾的是，由于展览空间的限制，还有许多染织工艺家和他的作品未能给予介绍。在20世纪60年代，工艺和美术的界线日趋模糊，打破以往工艺概念的新作品不断诞生，我们诚切希望本次展览能让大家俯瞰20世纪60年代到今天的京都染织艺术之全貌。

最后我们要特别感谢为本次展览提供宝贵展品的美术馆、收藏家和参展工艺家，以及对本次展览鼎力合作的各界人士。

2019年3月  
主办方

## 인사말씀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은 근현대의 미술뿐만 아니라 공예의 역사나 새로운 동향에도 항상 주목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토의 염직물 1960년대부터 오늘까지”를 타이틀로 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헤이안 천도로부터 이미 12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전통을 자랑하는 교토에서 염직물 장인들은 시대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디자인 등을 창출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전통은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으며, 비록 기법과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각 시대에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1963년에 개관한 이래 염직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1965년에 개최된 “세계의 염직물 1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비롯해 1969년에 개최된 “동양의 염직물”, 1971년 “염직물의 신세대”, 1976년 “미국의 퀼트”, 1976년 “오늘의 조형 <직물> 유럽과 일본”, 1988년 “섬유아트와 새로운 영역-미국”, 1996년 “텍스타일의 모험-현대 네덜란드의 4인 아티스트”, 1998년 “텍스타일의 발언: 영국의 오늘”, 2005년 “through the surface: 표현을 통해-현대 텍스타일의 일영교류” 등 작가의 개인전을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염직물 관련 전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우리 미술관이 문을 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염직물 상황을 소개하는 전람회이며, 28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 공간도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공예와 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종래의 공예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작품이 태어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토의 염직물을 개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전람회의 개최에 즈음해 귀중한 작품을 기꺼이 출품해 주신 미술관 및 소장가, 출품해 주신 작가 분들,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9년 3월  
주최자